

인류

**Week #21 “당나귀라고 했지?” •**

마태복음 21:1-17

브래드 목사

**마태복음 21:1-7**

1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4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5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의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7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겹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8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4 성전 뜰에서 눈 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16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어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17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 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서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Matthew 21:1-17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disciples, 2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her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3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say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4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5 "Say to Daughter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and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6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7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and placed their cloaks on them for Jesus to sit on. 8 A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9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10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11 The crowds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12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s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13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14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at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15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saw the wonderful things he did and the children shouting in the temple courts,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16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they asked him.

"Yes," replied Jesus, "have you never read,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Lord, have called forth your praise'?"

17 And he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where he spent the night.

### 마태복음 20:29-34

29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30 그런데 눈 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1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2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33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34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 Matthew 20:29-34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leaving Jericho, a large crowd followed him. 30 Two blind men were sitting by the roadside, and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going by, they shouted,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31 The crowd rebuked them and told them to be quiet,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32 Jesus stopped and called the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33 "Lord," they answered, "we want our sight."

34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and touched their eyes. Immediately they received their sight and followed him

### 마태복음 21:9-10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Matthew 21:9-10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10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 마태복음21:5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의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다."

Matthew 21:5

5 "Say to Daughter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and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 고린도후서12:9-11

9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11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 Corinthians 12:9-11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10 That is why, for Christ's sake, I delight in weaknesses,

in insults, in hardships, in persecutions, in difficul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